



국립군산대 김성천 명예교수, 대학발전기금 기부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3일 김성천 명예교수가 대학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발전 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전 기금은 국립군산대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지원, 대학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 명예교수는 국립군산대 환경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과 학문 발전에 헌신해 왔으며, 대학의 지속적인 성장과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뜻을 담아 이번 기부를 마련했다. 기부에 앞서 국립군산대 김 명예교수는 "국립군산대가 더욱 발전하고,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학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 나가길 응원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국립군산대 김강주 총장은 "대학에 깊은 애정으로 발전 기금을 기부해 주신 김성천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소중한 뜻이 학생들의 성장과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국립군산대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벚꽃·해안 코스 속 국제대회 위상 입증



군산시의 대표 체육행사인 2026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가 5일 월명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004년 전국대회로 시작해 올해 20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국내외 9개국에서 1만 2,000여 명이 참가해 엘리트 풀코스 마스터즈 풀코스, 하프마라톤, 10km, 5km 종목으로 진행됐다. 이날 경기 결과 국제 남자 부문에서는 아이삭 킵케보이 이 부(케냐) 선수가 2시간 07분 15초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2026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 성료
아이삭 킵케보이 투, 국제 남자 부문
심종섭, 국내 남자 부문
정현지, 국내 여자 부문 우승

국내 남자 부문은 심종섭(한국전력공사) 선수가 2시간 16분 37초로 1위를 기록했고, 국내 여자 부문은 정현지(삼척시청) 선수가 2시간 36분 23초로 정상에 올랐다. 또한 국내 남자 부문에 참가한 김호연(군산시청)선수도 2시간 18분 24초로 남자부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참가자들은 벚꽃이 만개한 봄날, 군산의 주요 근대문화 유산과 관광 명소를 질주하며 마라톤의 묘미를 만끽했다. 코스 곳곳에서는 시민들의 박수와 응원, 풍물놀이와 거리 공연이 이어지며 참가자들을 격려했고, 대회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번 대회는 해의 참가 비중이 확대되며 명실상부한 국제 마라톤 대회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또한 친환경 운영과 스마트 기록 시스템 도입으로 참가자 편의성과 대회 품격을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산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스포츠와 관광이 결합된 지역 대표 축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더욱 발전된 글로벌 마라톤 대회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도내 곳곳 식목 행사 잇따라



국립군산대

국립군산대학교는 제8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3일 교내 신록로 일원에서 제8회 식목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내 구성원의 환경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캠퍼스 내 신록을 풍부하게 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 및 교직원 등 약 50여 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캠퍼스 일원에 동백나무 약 300주를 심으며 나무의 소중함과 자연 보전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또한 식재 활동을 통해 친환경 캠퍼스 조성에 기여하는 의미를 공유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국립군산대학교 김강주 총장은 "이번 식목 행사를 통해 구성원들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녹지 조성과 환경 개선을 통해 친환경 캠퍼스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군산=김만호 기자



내고향 전통 고추장 대표 부부, 이웃돕기 성금

순창군 민속마을에 위치한 내고향 전통 고추장 대표 권장주·양내승 부부는 최근 순창군청을 방문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권장주·양내승 부부는 "오랜 기간 고추장 민속마을에서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며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권장주·양내승 기탁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은, 전주 드림지역아동센터에 'JB 희망의 공부방' 개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3일 전주 드림지역아동센터에서 'JB 희망의 공부방 제230호' 오픈식을 열고 아동들을 위한 학습공간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문을 연 드림지역아동센터는 현재 28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과 학습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개소 이후 18년이 지나면서 생활 및 학습 공간의 노후화가 진행돼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이번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전북은행은 오래된 벽지와 장판 시트지, 블라인드, 사물함 등을 밝은 색상으로 교체해 실내 분위기를 한층 화사하고 쾌적하게 바꿨다. 또한 아동들의 체형에 맞춘 책상과 의자를 새롭게 지원해 독서 교육과 숙제 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오픈식에는 드림지역아동센터 소영화 센터장과 전북은행 조인성 부행장은 정영민 전북특별자치도청 지점장 등이 참석해 새롭게 조성된 공부방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소영화 센터장은 "아동들뿐 아니라 부모님들도 새롭게 바뀐 센터의 모습에 놀라워했다"며 "전북은행의 도움으로 아이들이 각자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3일 전주 드림지역아동센터에서 'JB 희망의 공부방 제230호' 오픈식을 열고 아동들을 위한 학습공간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전북은행은 오래된 벽지와 장판 시트지, 블라인드, 사물함 등을 밝은 색상으로 교체해 실내 분위기를 한층 화사하고 쾌적하게 바꿨다. 또한 아동들의 체형에 맞춘 책상과 의자를 새롭게 지원해 독서 교육과 숙제 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오픈식에는 드림지역아동센터 소영화 센터장과 전북은행 조인성 부행장은 정영민 전북특별자치도청 지점장 등이 참석해 새롭게 조성된 공부방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소영화 센터장은 "아동들뿐 아니라 부모님들도 새롭게 바뀐 센터의 모습에 놀라워했다"며 "전북은행의 도움으로 아이들이 각자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익산시

익산시가 식목일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며 도심 속 녹색 공간 확장에 나섰다. 익산시는 지난 3일 '제8회 식목일'을 기념해 신흥공원 내 유아숲체험원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용 익산시 부시장을 비롯해 관계 기관·단체, 시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이리와 가족이 행복한 숲'을 주제로 마련됐으며, 유아숲체험원에 수목 1,000여 그루를 심어 산림 경관을 한층 개선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과정을 통해 숲의 소중함과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를 제공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정읍시

정읍시가 제8회 식목일을 앞두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완료한 지역에 편백나무를 심으며 건강한 산림 생태계 복원에 나섰다. 시는 지난 3일 이학수 시장과 지역 주민, 기관·사회단체, 공무원 등과 함께 편백나무 심기 행사를 열고 푸른 숲가꾸기에 동참을 이끌었다. 이번 행사는 산림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미래 세대에 푸른 숲을 물려주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그동안 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단목(감염목) 위주의 방제에서 수종 전환 방제로 방식을 바꿔 실시해 왔다. 이번 나무 심기는 방제 후 생긴 산림의 공백을 메우고 생태적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참여자 모집... 17일까지 접수

부안군은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2026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 기회가 부족한 장애인의 학습 참여를 지원하고, 역량 개발과 사회참여 기반을 넓히기 위해 추진된다. '평생교육권'에 근거한 사업으로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안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총 18명을 선발한다. 선정자에게는 1인당 연간 35만원의 교육비가 지원되며,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신청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간편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어 참여 접근성을 높였다. 대상자는 자격 확인 후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고령자 순으로 우선 고려한다. 선정 결과는 5월 중 개별 안내된다. 한편 이용권은 본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정 사용 시 지원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사회복지과 장애인보호팀(063-580-4852)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부안=김성진 기자



김제농협 농가주부모임, 6차산업 현장 견학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음) 농가주부모임(회장 김옥자)은 지난 1일 강원 영월농협 가공사업소와 영월 일대에서 6차산업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농산물의 생산과 수매, 가공 유통으로 이어지는 6차산업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김제농협이 추진하는 농공 사업과 접목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배우기 위해 마련됐다. 김제농협 농가주부모임은 이날 영월농협 가공사업소를 찾아 공 수매와 장류 가공 시설을 둘러보며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고추장 만들기 체험도 진행하며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의 의미와 6차산업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영월농협 가공사업소장으로부터 농협의 존재 이유와 역할, 농업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지역농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냈다. 특히 김제농협 농가주부모임은 곧 시작될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의 가치와 농업인의 역할을 다시 되새기며, 현장 중심의 배움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제=곽태 기자

금동,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과 환경 정비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봉래)는 제8회 춘향제를 앞두고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과 함께 관광객 맞이 환경을 위한 환경 정비로 쾌적한 마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정비는 금동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중심이 되어 주요 도로변과 관광 동선 골목길 등 관내 전반에 걸쳐 집중적인 정비를 실시,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은 물론 춘향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단순 청소를 넘어 환경 민원이 발생했던 구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해 보다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를 거두었다. 김봉래 금동장은 "제8회 춘향제를 앞두고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정비에 앞장서 주신 덕분에 지역이 한층 더 깨끗해졌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산동면, 의료-요양 통합돌봄 관련기관과 협력

남원시 산동면은 의료·요양 통합돌봄서비스를 적극 추진하는 민간지원과 건강관리, 일상생활 돌봄 등 통합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산동면은 관내 70세 이상의 어르신들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1일1가구 소용행정과 연계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찾는 한편, 기존 신청 대상자에 방문 간호를 통해 욕창간호와 건강상태 확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을 호전시켜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연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길재 산동면장은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어르신들이 살아온 곳에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신자봉 전북연합회, 모악산산 산불예방 캠페인



식목일 앞두고 산불예방 민·관 협력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신자봉연합회 육성하고 푸른 환경을 조성하는 취지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지난 3일 모악산에서 진행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불 원인의 약 30%가 입산자의 부주의에서 발생하며, 농촌 지역의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 일상적인 활동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다. 현장 대응과 진화 장비 충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행정기관의 예방 활동과 진화 장비 확충에 더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참여 등 민간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인 이유다. 신천지 자원봉사단 전북지역연합회(연합회장 이용우)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역 사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13년째 꾸준한 산림 보호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전북지역연합회의 활동은 산불 예방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피해 지역을 찾아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돕는 밀착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훼손된 자연을 가꾸고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한 산림 자원 육성에도 동참하고 있다.